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14, 23ㄴ - 29 (2025/5/25, 부활 제6주일, 청소년 주일)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막상 성취했을 때의 평화로움은 그리 길지 않음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프로젝트 후에, 시험 후에 느끼는 평화로움 같은 것이지요. 진정한 평화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마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참된 평화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과 만나는데에 있어서 방해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주님과 나, 둘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일회적인, 소모적인 평화와 다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평화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평화를 느끼면서, 또한 그렇게 얻어진 참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삶을 들여다 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해보고 같이 나누시길 권장합니다.

- 1)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경험이 있나요?
- 2) 세상적 관점에서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 경험이 있나요?